

美무인가·러 전투기 흑해상공 충돌

근접비행 후 미 드론 추락

“러 요격 시도” vs “미 급기동 탕”

‘네타 공방’ 속 일단 신중 모드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미국 무인기가 추락하는 냉전 이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국의 대립각이 이번 일로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양측은 사건 직후 미국측 무인기의 추락 원인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측 모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러 운용기 냉전 이래 ‘첫 충돌’, 어쩌다 일어났다=AP 통신과 미 CNN 방송 등 보도를 종합하면 양측의 충돌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이자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 서쪽인 흑해 상공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제공역에서 운항하며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의 정보감시정찰(ISR) MQ-9 ‘리퍼’ 드론 근처로 갑자기 러시아의 수호이-27(SU-27)기 2대가 가까이 날아왔다.

SU-27 전투기들은 드론에 접근한 상태로 30~40분간 주변을 순회하면서 드론 위로 연료를 뿌려댔으나, 양측 사이에 통신이 오가지는 않았다.

그러다 결국 오전 7시3분께 SU-27 한 대가 드론 프로펠러를 들이받았고, 드론은 인근 국제수역으로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군 당국의 주장이다.

MQ-9에 부딪힌 기체를 비롯해 러시아 측 전투기 2대도 손상을 입고 추락할 뻔 했으나 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MQ-9 리퍼는 날개 폭만 20m에 이르는 대형 무인기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시로 작전을 수행했고,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 장착도 가능하다. 가격은 대당 3200만달러(417억5천만원) 정도다.

◇추락 원인 놓고 ‘네타’ 공방=미국은 국제공역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요격 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이 지정한 출입금지 구역이 침범된 데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실제 충돌은 없었다고 맞박아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요격’이라고 표현하며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드론을 요격하려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치된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당시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드론이 국경 근처를 비행하다가 러시아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침범했고, 이에 드론 요격을 위해 러시아군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투기들이 실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드론과 충돌하지도 않았으며 “미국 무인기가 ‘날카로운 기동’(급한 방향전환 등)을 한 탓에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갈등 확산 자체 움직임도=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군사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간 대치가 직접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가디언은 “양측은 ‘최후의 수단’ 핵탄두를 수천 개씩 보유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행동은 위험을 상당히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측은 충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행여 갈등이 확산할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역대급 폭염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보카 지역 보도에서 어린이들이 간이 플라스틱 수영장에서 놀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최근 약 2주 동안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와 체감온도가 39~44도에 달했다. /연합뉴스

美 캘리포니아, 폭풍우로 30만 가구 정전

샌타클레라·새너제이 등 ‘마비’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방에 닥친 폭풍우로 이 지역의 약 30만 가구가 장시간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웃지’(PowerOutage.u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29만4065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전기회사 PG&E가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으로, 28만5461가구가 수 시간째 정전된 상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샌타클레라(12만5516가구)와 샌메테이오(5만1102가구), 콘트라코스타(5만1266가구) 카운티 등이 피해가 큰 곳

들이다. 샌프란시스코 남쪽 샌타클레라 카운티에 있는 도시 새너제이에서는 낮 12시 39분께 정전이 시작돼 6시간 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거리의 신호등도 다 나가고,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다”며 “휴대전화 배터리도 거의 방전된 상태인데, 충전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폭풍우는 지난 겨울부터 미 서부 태평양에서 발생한 ‘대기의 강’(atmospheric rivers) 현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닥친 11번째 폭풍우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10번째 폭풍우로 몬터레이와 샌타크루즈 카운티 일대에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홍수 피해를 겪었다. /연합뉴스



러야권운동가 나발니 모형 감방 방문 발길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 광장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46)의 감방 모형을 방문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中관영지, 시진핑 ‘러·우크라 중재’ 역할 강조

“사우디·이란 설득보다 쉬울 것”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5일 ‘테헤란과 리야드 관

계 재계에서 중국의 경험은 세계의 다른 분쟁 중재에 도움이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최근 중동의 양측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대표를 자국으로 불러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경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세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러시아 방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가 주석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중동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까지 손을 뻗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예의 아들”

이탈리아 전문가 연구

어머니가 코카서스 출신 노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어머니가 캅카스(코카서스) 지역 출신 노예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 통신과 이탈리아 ANSA 통신에 따르면 수십년간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연구해온 전문가인 카를로 베체 나폴리대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소설 ‘카테리나의 미소’를 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어머니 카테리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조각농의 딸로, 피렌체의 공증인 피에로 다 빈치와 혼외관계에

서 레오나르도를 낳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베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테리나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캅카스 산맥 지역의 소수민족 체르케스 출신으로 유럽에 끌려온 노예였다. 당시에는 캅카스 지역에서 사람들을 튀르키예나 이탈리아로 끌고 오는 노예 무역이 존재했다.

베체 교수는 카테리나가 캅카스에 있던 집에서 끌려와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에서 여러 차례 팔렸다가 베네치아를 거쳐 피렌체에 도착했으며, 피렌체에서 젊은 공증인 피에로 다 빈치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해인 1452년 공증인 피에로 다 빈치가 서명한 카테리나는 여성의 노예 해방 문서를 들었다. 이 문서는 피렌체시 기록원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임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삼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문지점 062)528-2640~2	상무지점 062)372-3741~2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